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 앞에 충성자는 메시아다. 그다음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와 중심인물들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다.
2. 요한계시록에 메시아를 충성자라고 했다.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정했다. 또한,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했고, 모세를 충성자라고 했다. 그리고 그를 따라 행한 자들이 충성된 자들이었다.
3. 충성은 심정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
4. 메시아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최고로 충성된 자, 충신이다. 왜? 삼위와 최고로 일체 되어 행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따르는 자들은 주를 보고 따라 행한다.
5. 하나님 앞에 사명대로 일을 맡게 되고 충성하게 된다.
6.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자기 책임이다. 물론, 하나님이 책임지고 가르치고 만들어 오셨으니, 혹여 안 하면 책망해서라도 하게 하신다. 끝에 가서도 안 하면, 각종 채찍을 하면서라도 뜻을 이루고 가신다.
7. 충성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행한다. 하나님이 아예 택하셨으니, 재능과 소질이 있어 하게 된다.

8.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면, 누가 반대해도 행한다. 충성자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맡은 사명을 하기 마련이다.
9. 자기 사명의 달란트가 작다, 크다 할 것 없다. 하나님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일을 맡긴다고 하셨으니, 자기 달란트가 작다고 걱정할 것 없다.